

2023년 2월 18-19일 주말예배/전반기 변화산 첫째 날
짙은 구름 더 깊은 궁흘 1. 검은 구름 속의 깊은 궁흘

검은 구름 속의 깊은 궁흘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

1.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23절

22. 여호와의 인자와 궁흘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017년에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 나눴던 묵상 글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아버지 보리스 부이치치는 [완전하지 않아도 충분히 완벽한]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난 아들을 처음 본 순간의 감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집으로 차를 몰고 오는 내내 거대한 슬픔의 파도가 계속 내 마음을 강하게 때렸다. 그 슬픔은 장애아가 태어났다는 것 때문이 아니라 기대했던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된 감정이었다. 내 불신과 절망은 이내 활활 타오르는 분노로 발전했다. ‘하나님, 저희에게 왜 이러시나요? 도대체 왜요?’”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이러한 순간, 우리는 용기를 내어, 나를 향해 응답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포기하지 않고 ‘제대로 불평’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생생하게 만나는 곳은 바로 거친 파도의 한가운데이며, 주님을 가장 강렬하게 불잡아야 하는 순간이 있다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옆에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하고 속삭이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보았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주인공 황정민이 했던 마지막 말이 있죠.
“아버지, 나 힘들었어예!”

라는 말이 패배자의 말이 아니라,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왔던 한 사람의 고백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 참 많이 힘들었어요!”

라는 말이 두려움에 지쳐 떨어져나간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의 파도 속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흔적을 가진 신앙인의 고백이 되기를 말입니다.
어두움의 터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내가 불잡고 살아가는 주님에 대한 기대가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한 성품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불평조차 포기하고 애통하지 않고 조용히 절망하는 것입니다.

애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마크 브로갑이 쓴 [짙은 구름, 더 깊은 긍휼]이라는 책이 주는 큰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검은 구름이 드리울 때, 긍휼로 가는 통로로 ‘애통’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애통에 대한 말씀은 시편에 있는 ‘비탄 시’와 예레미야의 ‘애가’가 대표적입니다. 이 애통의 노래들은 우리 인간의 고통을 표현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브로갑에 의하면,

“애통은 냉혹한 현실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라는 두 기둥 사이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준다.”

조금 설명해 볼까요?

우리의 삶에 슬픔이 찾아올 때, ‘애통’하지 않으면 원망과 분노가 우리의 삶, 심지어 영적인 삶도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애통’은 우리의 슬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행위를 뜻합니다.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당할 때, 슬픔을 당할 때 그것들을 처리하는 법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브로갑은 이러한 상황을 ‘짙은 구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도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에서 가져온 생각인 것 같습니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상황을 ‘짙은 구름’ 속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라는 소망이 없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마지막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6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1.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2.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 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3.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세대의 아들과 손자들까지 바벨론 땅에서 포로가 되어 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에서 애통합니다. 애통하지 않고는 지금의 슬픔을 이겨낼 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변화산에 올라 우리가 ‘애통’의 문제를 다루려는 이유입니다.

‘애통’은 크리스천들이 슬퍼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변화산 기도회를 통해 ‘애통’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절망과 슬픔, ‘짙은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삶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슬퍼하려고 합니다.

애통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도록 돋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에게 우는 법을 가르쳐준 적이 있나요?

아무도 배우지 않았지만, 누구나 태어날 때 우렁찬 울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울었다는 것은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 인생 중에 울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려고 하는 ‘애통’은 그냥 ‘울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애통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애통은 의도적인 기도입니다.

애통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애통은 고통당하는 우리 인생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씨름하는 상한 심령의 부르짖음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23절이 이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22.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브로갑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통은 믿음에 근거한다.

애통은 신학으로 가득한 기도다. 크리스천들은 망가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믿는다. 따라서 애통은 고통과 약속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것은 인간적이지만, 애통하는 것은 기독교적이다.”

지난 해 MMP 교회 목회자들이 수요예배에서 시리즈로 설교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산 큰빛교회 임성범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아이고 아이구’라고 잡았는데 참 인상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말에 ‘아이고, 아이고’는 비탄과 한탄에서 나오는 의성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한자로 이렇게 풀었습니다. ‘아이고(我而苦) 아이구(我而救)’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구나, 그러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말입니다.

이 말처럼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려는 ‘애통’을 잘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애통’과 ‘찬양’을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면, ‘애통’은 고통과 긍휼 사이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애통하면서 우리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 애통은 삶에서 소망으로 가는 통로임이 분명합니다.

잘 애통하기 - 애통하며 기도하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배워보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애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애통을 통해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애통의 시작은 우리 인생이 고통을 느끼는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고통이 애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기도가 아닐까요?

시편 77편은 대표적인 애통 시 중에 하나입니다. 1-2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1.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2.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통 중에서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애통이 자신의 신세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는 명백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도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애통의 기도는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애통하지 못할 것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나 솔직하고 대담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브로갑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볼 때 많은 사람이 애통하기를 두려워한다. 애통이 너무 노골적이고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애통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은 조용한 절망이다.

하나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불신의 궁극적인 증거다.

하나님께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포기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예레미야 애가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음이여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통하고 있으나,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애통하고 기도하나, 애통의 기도가 바로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직은 짙은 구름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애통한다고 즉시로 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슬픔은 길들여지지 않는다!’

슬픔은 억숙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슬픔의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슬픈 것입니다.

애통은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통했으니, 애통의 공식을 통해 즉각적으로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애통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언젠가’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가요? 7-9절 사이에.

1.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2.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 3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4.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5. 하나님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6.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중요한 것은 시편 77편 11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11.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그리고 13-15절 사이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분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13. 하나님의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14.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15.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애통함은 지금 자신 처한 냉엄한 현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가요?

그 분은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애통할 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 분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 하여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애통’은 감당할 수 없는 눈앞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순간에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박순희 시인의 ‘사람의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이 밝으면

동산 위로 해가 솟았다고 말한다.

한 낮이 되어 그림자가 짧아지면

해가 머리 위에 와있다고 말한다.

저녁놀마저 사위고 숲이 어둠에 잠기기 시작하면

해가 넘어갔다고 말한다.

해는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람들은 해가 하루 종일 움직였다고 말한다.

또 하나님의 애통 - ‘불평’

시편에는 애통하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하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시편 10편 1절을 보겠습니다.

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브로갑은 그의 책에서 “애통의 궁휼을 경험하려면 불평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의 궁휼을 경험하는 방법일까요?

우리 중에 누가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하나님께 대한 불평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어서 불평과 슬픔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참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애통함을 쏟아 놓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경건한 불평’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하지 않은 불평이란 무엇일까요?

고통 앞에서 단순히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독한 분노에 휩싸여 남은 인생을 절망과 원망의 감옥 속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통이 불신으로 치달으면 결국 하나님을 부인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고통 앞에서 현실을 부정하며 금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습니다. 단지 고통을 숨긴 채 현실 부정의 감옥에서 사는 것입니다.

경건한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지금은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지만, 곧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평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 그리고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불평할까요? 이런 믿음이 있는데 말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우리 인생은 험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비극이 가득한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언어다.

이번 장을 쓰는 동안 나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한 귀한 남성의 장례식에 참여했고, 골수암과 싸우는 10대를 심방했으며, 강간범을 법정에서 마주쳐야 하는 여성을 위해 기도했고, 유방암에 걸린 임산부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했으며, 자신을 죽이려는 아버지로 인해 괴로워하는 젊은 여성을 위해 기도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이 만사를 다스리신다고 믿지만 삶의 어려움을 지나고 있었다.” – 마크 브로갑

무엇이 힘든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더욱 힘이 듭니다.

애통과 불평으로 가득한 삶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힘든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의 불평을 다시 한 번 마주 대해 보겠습니다. 시편 10편 1절.

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시편기자의 불평은 해결되지 않는 불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불의한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번민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스라엘을 노예 되었던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이십니다. 그 분은 광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그 분은 광야를 지나는 중 성막이 옮겨지는 곳마다 함께 하셨던 분이십니다. 즉, 그들의 삶에 아주 밀접하게 계시고 역사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기자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떤 감정으로 시편기자는 기도하고 있을까요?

곧경에 처한 이스라엘로부터 멀리 떨어져계신 하나님이라니, 아마도 그 분이 자신을 돋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죠.

가장 큰 고통은 지금 당하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아닐까요?

이제 시편 기자는 더욱 통렬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감정이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숨다’라는 말이 ‘손을 떼다’ ‘모른 체하다’, ‘속이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편기자의 불평은 단순히 자신이 당하는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으로 인해 더욱 고통스러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의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불평이 많이 공감이 갑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평은 시편에서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시편 22장 1절.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돋지 아니하시오며…”

이런 시편 기자의 불평은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아닐까요?

가만히 시편 기자의 심정으로 감정을 이입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기자는 왜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 그러한 불평이 단순한 원망으로 인해 절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답답함을 토로하는 불평과 애통함이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대로 불평해야 합니다. - 불평하는 기도에서 요청하는 기도로 -

오늘 우리가 변화산 기도회를 시작하며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불평하는 것입니다.

1. 교만이 아닌 고통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라!

그러고 보니, 불평을 할 때, 교만하게 하는 불평도 겸손하게 하는 불평도 있는 것 같습니다.

2. 애통이 선을 넘지 않도록 성경적으로 기도하라!

3. 겸손하고 솔직하게 빠짐없이 아뢰라!

우리에게는 “말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롬 8: 26)

4. 단순히 불평만 하지 말라!

불평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단순히 불평하기 위해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 그 분 앞에 불평을 쏟아 놓는 것입니다.

불평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분의 성품에 기대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특징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확신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고통 가운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보여주셨던 역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고난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뿐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 인생의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계획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고백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28. 우리가 알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의 고통과 애통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의 순서를 따라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애통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는 광야를 지나는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고백을 따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긴 여정 속에 들어갑니다. 때로 짙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어 앞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정 속에 주의 다스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짙은 어둠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변화산을 통해 애통의 여정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짙은 애통이 깊은 긍휼로 경험되기를 바랍니다.